

‘목포 뮤직플레이’ 내달 23~25일 개최

공연·전시·체험존·브랜드관 등 콘텐츠 다채

목포시는 오는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목포종합경기장 일원에서 ‘2025 목포 뮤직플레이’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목포, 음악이 되다’란 주제로 펼쳐지는 ‘2025 목포 뮤직플레이’는 공연·전시·체험존·브랜드관·플리마켓 등 다채로운 콘텐츠로 구성된다.

이번 축제는 목포가 지닌 근대 대중음악의 뿌리와 정체성을 재조명하고, 지역 고유의 음악자산을 활용한 특화 문화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다.

목포시는 ‘목포 뮤직플레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부서별 추진계획 보고회를 갖고 막바지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보고회에서는 각 부서별 추진계

획을 공유하고 축제 전반의 협업과 역할 분담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축제장 안전관리, 교통통제, 홍보방안, 관람객 편의시설 배치, 시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실무 부서들간 협의를 진행했다.

목포시는 앞서 지난 3월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 실행계획 보고회를 마치는 등 축제 준비를 본격화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기반으로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올해 뮤직플레이는 목포만의 매력을 음악을 통해 전국에 알릴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목포=김재욱 기자

무안 ‘구제역 확산 차단’ 행사·축제 전면 재조정

유채꽃 축제, 돈·세·고 축제 등 취소·연기

황토갯벌축제 9월로 잠정 연기… 방역 강화

무안군은 최근 관내에서 확산 중인 구제역 차단을 위해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각종 행사를 전면 취소하거나 연기·축소하고, 방역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무안군에서는 지난 3월 16일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이후 방역대 3km 내 이동제한 해제 검사 과정에서 지난 11일 2곳, 14일 3곳의 농가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했다.

군은 즉시 발생농장과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9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드론 공동방제단과 제설차량까지 투입해 방역대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또 해제면 유채꽃 축제·해제면민의 날과 망운면민의 날, 물맞이골 숲길 및 체험행사에 이어 5월 3일 어린날 기념행사를 전면 취소했다.

구제역이 최초 발생하면서 19~20일로 한차례 연기됐던 운남면 ‘돈·세·고 축제’는 10월 3~4일로 재연 기됐으며 5월 7일 열릴 예정이던 제56회 무안군민의 날은 6월 중순으로 연기했다.

이 외에도 5월 10~25일로 예정된 지역의 대표 축제인 제11회 무안황토갯벌축제도 9월 중으로 잠정 연기했으며, 26일 열릴 예정이던 초의선 사탄생분화제는 전면 취소하고 초의



구제역 방역초소 점검하는 김산 무안군수.

선사탄생일을 기념하는 공식행사인 현대레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김산 군수는 “군민과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모든 행정력

을 집중하겠다”면서 “불가피하게 각종 축제와 행사를 연기하는 만큼 군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축산농가들은 방역 소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무안=김상문 기자

신안,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10개 가게면 충분” 골목형상점가 문턱 낮춰

신안군은 지역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여 골목형 상점가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 2,000㎡ 이내 15개 이상의 점포가 연접해 있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같은 면적 내 10개 이상의 점포가 있으면 지정이 가능해진다. 상점 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더 많은 소규모 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또한, 상점가 면적 산정 시 도로·주차장 등 공용부지를 제외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점포 밀집도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기존에 요구되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절차가 삭제되어, 지정 절차도 간소화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가능해져, 실질적인 판로 확대와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소규모 상권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문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정경욱 기자

해남, 영덕 산불피해돕기 “군민 마음 다시 모았습니다”

해남미소 입점업체 구호물품 5200만원 상당 후원



해남군이 지난 3월 30일 영덕 산불 피해 돕기 1차 지원을 한 데 이어 15일 군민들의 마음을 모아 영덕군에 2차 구호 물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에는 해남군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농수산소평물 해남미

소에 입점한 26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쌀, 김치, 떡, 빵, 고구마, 잡곡, 꿀, 김, 함초소금, 된장, 배즙, 쌀, 오란대 등 29종 5,200만원 상당의 물품이다.

전달식에는 명현관 군수와 피난시

에, 늘해랑, 땅끝쌍둥이김치, 애돈인, 더라이스, 방긋웃는 농업회사법인, 미식판, 화원농협 대표가 함께 참석했으며, 물품은 현재 임시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산불피해 이재민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명현관 군수는 “지난 30일 1차 지원에 이어 2차 지원에도 함께 해주신 해남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영덕 산불피해 이재민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영덕군 관계자는 “보내주신 농산물이 이재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마음과 정성에 깊은 감사들 드린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해남군은 영덕군의 피해가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으로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해남=김동주 기자

완도치유페이 현장 안내소

인생 사진 무료 인화 부스 설치

완도군은 ‘완도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고자 17일부터 사진 인화 이벤트를 진행한다.

사진 인화 이벤트는 관광객들이 여행하며 촬영한 사진을 완도치유페이 현장 안내소(해변공원로 84, 해조류센터 앞에 마련된 전용 부스에서 인화해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했다.

부스에는 사진 인화 기기와 함께 사용 설명서가 비치되어 있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화 비용은 무료이며 1인당 1회 사용 가능하다.

부스 외관을 해변, 귀여운 캐릭터 등의 일러스트로 꾸며 포토존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완도=이두식 기자

2025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슬로시티 청산도 일원

2025년 4월 5일(토) ~ 5월 4일(일)

주최 : 완도군

주관 : 청산도슬로걷기축제추진위원회

강진 ‘동네상권발전소’ 공모 선정… 국비 3000만원 확보

서문길 골목상권 자율 상권 도약 발판 마련

강진군이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동네상권발전소 네트워크형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3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공모사업은 6대 1의 경쟁률로 심의위원회를 거쳐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동네상권발전소 네트워크형은 골목형 상점가 구성이 필수이며 상권 발전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 전액 국비이다.

강진을 서문길 상인의 적극적인 의지와 함께 시작한 동네상권발전소는 강진군과 강진군소상공인연합회가 연대해 구체적인 전략 수립 등 사업 계획 실현이 가능하도록 직접 발로 뛰었다.

서문길 지역은 인근 아파트 주거단지가 있는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특성 있는 주변 상권에 비해 상인회의 부재 등으로 상권 활성화 사업을 진행한 적이 없으며 현재 진행 중인 자율상권 구역과 다른 곳에 위

치하여 경쟁력이 비교적 낮은 곳이다.

서문길은 강진군에서 매년 진행하는 수국축제장과 인접해 있고 강진의료원, 군청, 버스터미널, 강진아트홀 등 주요 시설이 근처에 위치하는 데 250m 남짓한 거리의 탐관한센터가 완공되면 강진군 서문길의 가치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강진군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공모사업으로 골목형상점가의 조직화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권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 자율상권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진=김경선 기자

우승희 영암군수,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성공 개최 염원

우승희 영암군수가 16일 군청에서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성공 개최를 염원하는 전남 시·군 단체장 릴레이 헬린지에 마지막 주자로 참여했다.

이 헬린지는 올해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경기가 열리는 시·군의 단체장이 국민 관심도 제고와 분위기 고조 등을 위해 진행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군에서

경기를 치르는 선수단과 응원객들이 행복한 추억을 가져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한 사람의 부상도 없이 모두가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즐기면 좋겠다”고 응원했다.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전남 20개 시·군 57개 경기장에서 열리고, 영암군에서는 산악, 테니스 2개 종목이 3개 경기장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영암=김형두 기자



진도 ‘80세 이상 어르신에 목욕, 이·미용 바우처’ 지원

읍·면 사무소 복지팀에 신청

진도군은 올해 3월부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 중이며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80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목욕비와 이·미용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월 5000원 상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의 복지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금은 카드에 매월 1일 충전된다.

카드는 사용 금액이나 횟수에 제한이 없고, 미사용 지원금은 누적 적립되어 해당 연도 12월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사용이 가능한 업소는 지역 가맹점으로 등록된 목욕탕과 이·미용업소이며, 가맹점 등록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가능하다.

진도군 가족행복과 관계자는 “목

욕, 이·미용 바우처 지원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해당 어르신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청 방법 등에 대한 문의나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061-540-1274) 또는 읍·면사무소 복지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진도=박재영 기자